

약속 안에 있는 견고한 소망

창세기 22:13-18, 히브리서 6:9-20

최정웅 목사님

요약

서론 :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1.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 (1)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고 충분하며 영원하고, 절대적이다.
- (2) 하나님의 약속 2가지 : 성취된 약속(그리스도), 성취될 약속(세계복음화)

2.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 (1)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승리했다.
- (2) 약속을 기업으로 붙잡아라. (나, 가정, 후대의 약속으로 구체화시켜서 적용)
- (3) 약속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마라. (집중과 반복을 통해 각인시켜야)

결론 : 내가 소망이 있는지, 내 인생이 확신에 찬 인생인지 스스로 점검하고, 소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비램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희망이 바로 소망이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다. 초대교회는 극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했다. 폴리갑(폴리카르푸스 Polycarpus, 69~155)이라는 교부가 있었다. 이분은 나이 80이 넘어서 예수 믿는다는 죄목으로 붙잡혀 화형을 당하게 되었다. 그 재판관이 안됐다고 본 모양이다. 머리가 허영게 된 할아버지가 화형을 당한다고 하니가 양심에 가책이 되었던지, “이보시오, 영감님. 당신이 지금 한 마디만 하면 당신을 용서할 수 있소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한 마디만 하시오.” 그랬더니 이 폴리갑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 말을 참 잘 했소. 당신 말대로 내가 나이 80이 되어 살아보아야 얼마나 더 살겠다고, 8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배반하고 부인할 수 있겠소?” 놀라운 이야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재판관이 화형을 시켜야 하니가 가운데 폴리갑을 묶으려고 하는데, 폴리갑이 한 마디를 더 했다. “나를 묶을 필요가 없소 나의 주님이, 이 불 속에서 견딜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게 하실 것이오” 그 어떤 힘이 이런 힘을 줄 수 있었겠는가.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는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했다.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 당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 이라고 말씀했다. 롬5:3-4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참 소망을 굳게 붙잡는 이 시간, 한 주간 사시게 되기를 축원한다. 막연하게 좋은 것을 바라라는 말이 아니다. 오늘 본문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세상의 희망은 보장이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봄에 푸는 꿈처럼 허망하게 되기가 십상이다.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1.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소망을 가지려면, 먼저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1) 우리가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른다.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완전하고 충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그리고 절대적이다.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깨어지지도 않고, 헛되지도 않는 것이다. 금방 깨어지고, 배신하고, 허점도 많은 사람들의 약속과는 다르다. 왕상8:56에는,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사54:10에는,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언약은 옮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두고 히브리서 13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보다 큰 이가 없기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고 했다. 16절에, ‘사람은 자기보다 큰 자를 두고 맹세하는데, 맹세는 그들이 다루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했다. 17절에, 그래서 이 약속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맹세로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약속은 하나님의 보증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다.
- (2)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옛 약속 구약과 새 약속 신약으로 되어 있다. 학자들에게 따르면 성경에 7천여 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많은 약속들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취된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성취

될 약속이다. 이미 성취된 약속과 앞으로 성취될 약속인 것이다.

① 첫째, 성취된 약속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의 약속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저주를 당하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운명, 사주팔자 속에 있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것이 구약성경의 약속이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약속은 창3:15이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통을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나는 이 기름이 참기름인가, 들기름인가, 피마자기름인가 하고 고민했다. 휘발유도 아니고, 등유도 아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도 ‘기름부음이 뭔가, 끈끈한 텐데, 불 나면 큰일 날 텐데’ 하고 생각했었다. 지금도 그 기름을 잘 모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올리브유 아니냐고 하더라. 요즘 그것 요리할 때 쓰지 않나. (웃음)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은 향수다. 여러분은 행복자다. 이런 것을 다 가르쳐 주지 않나. (웃음) 나는 아무도 나한테 이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말인데,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리어이다.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다. 이것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쓴다.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이 쓴다. 번역하면 그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느 집사님에게 물어봤다. 너무 성경을 잘 알고 은혜를 많이 받는 다 하기에, 그분에게 물어 보았다. 자신있게 뭐든지 물어보라고 하기에, 내가 질문했다. “성경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이분이 확신도 자신도 있었던 얼굴에서 어정쩡한 얼굴로 바뀌었다. “글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던가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 나를 놀라게 했다. “근데 사실 그 말이 외국어라서 나는 잘 몰라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 온 것이다. 내가 이것을 설명해 주려고 질문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말해 주었더니 자기도 조금 아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설명은 못 한다. 왜냐? 희미하기 때문이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그렇게 말했다. “나도 알아요,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것을 알아요. 그를 만나면 내 모든 문제도 해결되겠지요. 내게 다 알려줄 거예요.” 그 가여운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 나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그 시간에 물 길러 왔던 이 여자는 물통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갔다. 마을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여자인데, 뭐라고 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왔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이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모두 믿게 되었다. 그 다음에 한 말은 좀 섭섭하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을 우리도 참 많이 겪는다. 여비도 들이고 시간도 들여서 복음을 전해주었더니, ‘이제는 됐으니 그만 오라’고 하는 것이다. 수가성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란다. 같은 말이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 ‘엘리아야, 너는 아벨므홀라에 가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뒤를 잇는 선지자로 삼아라.’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 자손에게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삼아라.” 사무엘에게 명령하셨다. “사무엘야,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지명하는 자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것이다. 이 세 직분을 맡을 자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이다.

- 1) 선지자가 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선지자가 한 일이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오는 선지자마다 다 죽였다. 모든 선지자가 실패했지만,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해 주는 참 선지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없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2) 제사장들이 다 제사를 지냈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했다. 제사장 자신도, 자기 죄를 위해서 계속 제사를 지내야,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만약 70억 인구가 짓는 죄에 대해 모두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 지구상 동물은 쥐새끼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만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기억하고 정죄하는데, 그것은 틀린 것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으며, 허물과 죄로 죽어 버렸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다(히9:12). 예수님이 바로 이 참 제사장이시다. 히9:22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자기 피로 참 제사를 드린 것이다.
- 3) 우리 인간의 원수는 인간이 아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이간시키고 속이는 사단 마귀다. 그런데 이 마귀를 이길 자가 없다. 지성인도 권력자도 부자도 상관없다. 아무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 원수 마귀 사단을 잡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다. 원래 왕은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자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

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창3:15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그 약속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약속을 주셨다. 이 약속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모든 자에게 유효하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란다. 나는 서울에 올라올 때, 야곱처럼 피나리봇짐 하나만 메고 있었다. 야곱은 어머니가 누그러지라도 싸 주었는데, 나는 그것도 없이 맨손으로 서울에 올라왔다.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완전히 자신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을 가져라.

② 성취될 약속은 무엇인가? 세계복음화가 될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은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 마24:14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인자가 오리라.”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이 한 가지 약속만이 아직 남아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영혼 구원에 있다.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게 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과 소원이 있는 것이다. 딤후2:4에 말씀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마28:16-20), 만민에게 가라(막16:15-20), 땅 끝까지 가라(행1:8)’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2.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큰 두 번째로, 약속이 무엇인지 알게 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이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요셉은 창37:1-11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을 딱 붙잡은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노예생활을 견뎌냈다. 그 약속을 가지고 감옥에서 견뎌냈다. 승리할 수 있었다. 총리가 되어서도 그 약속을 붙잡고 타락하지 않았다. 우리의 희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장이 있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 약속은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다. 사람의 말처럼 변(變)되는 약속이 아니다.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참사랑 성도들이 되시기 바란다.

(1) 성경에 보니까, 약속을 붙잡았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승리했다. 아들 하나 없이 늙어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다. 이 말을 천막 밖에서 들은 사라는 웃어 버렸다. 비웃음의 웃음이다. ‘내 나이가 89세고 남편 나이는 99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나.’ ‘내가 어째서 웃느냐?’ ‘아이고,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내가 웃었다. 아들 이름을 이삭(웃음)이라고 하라.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행복의 웃음이 될 것이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후손 중에서 언약의 자손들이 일어나게 하셨다. 요셉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약속으로 붙잡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모세는 출애굽의 약속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붙잡았다. 한나는 나실인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낳았다. 다윗은 왕이 될 약속을 붙잡고 결국은 승리했다. 몇 번이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끝까지 죽이지 않고 용서했다. 하나님의 변개지 않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와 그릇터기에 대해서 약속을 붙잡았는데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약속을 붙잡고 승리한 인물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이다. 여러분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속 성공자들처럼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다. 내가 보면 약속대로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인데, 조금 듣고 난 뒤에는 바로 불신양해 버리더라.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나?”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성경은 다 거짓말 책이 되는 것 아닌가? 참사랑 가족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으시기 바란다. 그 말씀에 생을 거시기 바란다. 내가 서울에 신학 공부를 덜 마치고 올라왔다. 마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그때는 우유를 병에 담아서 팔고 있었다. 우유 배달을 제대로 하면 43%가 남게 되어 있지만, 우유만 마시고는 돈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 계속 적자다. 학업을 계속 할 수가 없었다.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교회에서 헌신하게 해 달라, 안 되면 청소라도 하겠다’고 했지만, 저 시골에서 올라온 나를 받아주는 교회가 없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를 받아주는 곳이 없네요. 어디로든 보내 주시면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연락이 왔다. “포천에 정착민 마을이 있는데, 그 교회에 가 보지 않겠나?” 기도응답 아닌가. 당장 가서 장로님을 만나고 헌신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채워 주셨다.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내 삶으로 증명해서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기업으로 딱 붙잡는 것이다. 믿어야 한다. ‘나는 교회만 하다가 죽을 것이다.’ 그 약속대로 되었다.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외국인 하나가 나를 찾아왔다. 흑인이었다. 이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는 봉투를 내밀었다. 뭐냐 했더니 십일조라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십일조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회를 전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직업이 있느냐고 물었다. 목회가 풀타임 잡(full time job)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당신은 최고의 목사라고 하더라. (웃음) 알고 보니 미국에도 다른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 한국에도 많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복음을 위해서 올-인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심을 믿는다. 개척교회 목사도 아들딸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아이 하나 보내는 게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어떻게 인재를 키우고 후대를 키우겠는가. 이것은 정말 기도할 일이지 아니 싶었다. 하나님은 그러나 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다. (2) 오늘 11, 12절을 보니까, 히브리어 기자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러분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되시기를 바란다. 17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보증이 되신다고 했다. 18절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에, 이 말씀을 붙잡는 자는 소망과 위안을 얻게 된다고 했다. 19절에, 이 소망은 영혼의 닻과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준다고 했다. 약속을 기업으로 붙잡으시기 바란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나와 맺으신 언약으로 구체화해서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이 약속을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 우리 자녀와 후대에 주신 약속으로 구체화하고 사실화해야 한다. 목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임을 믿으셔야 한다. 메시지에 나온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 가정의 세계복음화가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체험하며,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것인가 생각해 보라. 세계복음화를 위해 내가 받아야 할 응답과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 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다.

(3)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다. 각인시키자는 것이다. 이 약속을 늘 자신과 후대에 각인시키자고 말씀드렸었다. 송구영신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각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집중과 반복이다. 훈련을 통해서 이 약속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란다. 그리고 매시간 정시기도 때마다 이것을 행복하게 자신에게 반복해서 각인시키시기 바란다. 여러분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훈련을 받으시기 바란다. 기도 집중을 통한 각인에 성공하시기 바란다. 여명이가 밥을 먹고 있길래 물어봤다. “명아, 너 복음소식 다 기억하고 있나?” 한 70%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학교를 갔으니 이제 새로 암송해서 너의 영혼에 각인시켜 보라.” 나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손녀는 말이 얼마나 빠르니, 17분 메시지를 15분 만에 다 해 버렸다. 말이 너무 빨라서 약간 느리게 재생해 봤더니 너무 잘 했더라. 그런데 물어봤다. “지수야,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 못 한다고 했다. (웃음) 이제 초등학교 갔으니 새로 하자고 약속했다. 선생님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무엇을 아는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번 합숙에 장로님들이 다 참석하라. 나도 참석할 것이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도 건방울 떨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나를 쓰실 것이다.

말씀을 마치려고 한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지 질문해 보라. 진정한 소망 말이다. 나의 인생은 확신에 찬 인생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이번 한 주간, 나 자신과 우리 후대가 진정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 소망과 확신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약속을 붙잡으면 된다고 말씀드렸다. 참사랑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남은 평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으로 붙잡게 되기를 축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시다. 참되고 거짓 없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면,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세계복음화에 생을 걸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이루시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나의 기업으로 붙잡으시기 바란다. 이 땅에서의 기업과 천국에서의 상급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잊지 마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견고한 소망이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며, 확신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 우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 두었다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벧전 3:15).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시기 바란다. 우리에게 있는 참 믿음과 확신, 우리에게만 있는 참된 소망을 전달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3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이 언약의 말씀, 약속 안에 있는 견고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담대히 승리의 아침, 부활의 아침, 성령충만의 계절을 향하여 도전하게 하옵소서. 주저하지도 포기하지도 않게 하시고, never give up 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는 전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